

교회소식

- 다음 주일은 제직 주일로 지킵니다. 모든 성도는 제직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 성찬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의 공동체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소망합니다.
- 목요 기도회가 오는 20일(목) 오후 7시부터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 전 교인 사진 촬영이 오는 23일 주일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공동체별로 촬영합니다(단장 중인 홈페이지에 수록).
- 2022 대심방을 공동체별로 1월 말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동체장들은 심방 계획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공동체 편성은 다음 주에 알려드립니다).
- 야외 예배를 2월 7일(월)에 공동체별로 갖습니다. 장소와 진행은 행사 진행부에서 주관하기 바랍니다(문의: 손조훈 집사).
- 말씀 묵상집인(Q.T) '생명의 삶'을 활용하여 신앙 성숙을 이루시기 바랍니다(신청: 김영아 집사, 1년 정기구독료 및 배송료 \$100, 추가 비용 교회에서 부담).
- 주일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신년 첫 월례회로 모입니다(예배실 오른쪽: 남선교회, 왼쪽: 여선교회).
- 아동부 여름 성경 학교가 오는 1월 22일(토)-23(주일)까지 있습니다.
준비물: 성경, 필기도구, 여벌옷, 아동부 연두색 티셔츠, 회비: \$10
문의: 김양이 전도사 (021 022 89074)
- 예배 후 친교는 예배당 뒤쪽에서 합니다. 청년부는 청소년부실에서 친교를 가져 주시고 조별 모임은 월례회가 끝난 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 찬양대 연습은 아동부실 중 1번 방에서 있습니다(본당 뒷문 통로를 따라 10m 오른쪽).
- 모든 공간이 협소하고 부족합니다. 서로서로 배려하고 협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January

교회사역일지

1월 2일(주일)
신년 주일
1월 9일(주일)
성찬 주일
1월 23일(주일)
제직 주일

기도순서

1월 16일 (주일)
손조훈 집사
1월 19일 (수)
가정 예배
1월 23일 (주일)
이정인 집사
1월 26일 (수)
가정 예배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김창조, 김명옥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허영순,
박혜정

211 Great South Rd,
Greenlane,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
/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24권 2호 2022.01.09

주 일 예 배 오후 3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 주일 찬양단

예 배 로 부 름 ----- 이사야 43:19-21 ----- 인도자

* 찬 송 ----- 10장 ----- 다함께

* 참 회 의 기 도 ----- ----- 다함께

*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함께

찬 송 ----- 552장 ----- 다함께

대 표 기 도 ----- 박병민 장로

성 경 봉 독 ----- 디모데전서 4:5 ----- 인도자

찬 양 대 찬 양 ----- 신자되기 원합니다 ----- 나무십자가찬양대

설 교 ----- 말씀과 기도로 ----- 이태한 목사

성 찬 예 식 ----- ----- 집례자

찬 송 ----- ----- 다함께

헌 금 기 도 ----- ----- 인도자

교 회 소 식 ----- ----- 인도자

* 공 동 성 경 읽 기 ----- ----- 다함께

* 응 답 송 ----- 411장 (1,3절) ----- 다함께

* 축 도 -----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예배시간안내

주일 예배 3:30 pm
청년예배 3:30 pm
유아부 3:30 pm
아동부 3:30 pm
청소년부 3:30 pm
수요예배 -
목요기도 7:00 pm

섬기는 사람들

담임 목사 이태한
부 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선교란

이번 주는 Prayer Together에서 보내온 대한민국과 북한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1. 미션스쿨 예배 금지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현재 소관 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며,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과목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교묘하게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에 성적 지향 등 동성애 차별 금지법의 내용을 포함시켜 차별 금지법을 실시하고자 하는 악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션스쿨의 건학 이념을 무너뜨리고 다음 세대에 신앙의 전수를 못하게 하는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 학부모들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2. "기도, 1시간은 권총, 3시간은 기관총, 7시간은 핵폭탄"

남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한 6개월(2022.11.~7.1) 특별 철야 기도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는 에스터 기도 운동 센터와 전국과 해외에 있는 기도 헌신자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보호하여 주소서, 생명 드려 기도함으로 거룩한 기도의 제물이 되어 이 나라를 살리고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북한:

1. 유엔총회, 17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책임 규명 중요성 강조"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의 실태와 책임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다룬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17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결의안에는 최초로 한국전쟁 국군 포로와 후손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전 세계 나라들과 UN이 국제적으로 서로 협력하며 합당하게 대처함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 북한 동포들의 참혹한 인권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소망합니다.

2. 영국 NGO "북 식량난으로 기독교 박해 증가 우려"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증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수감 등 각종 인권유린과 온갖 박해를 겪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고 또 한겨울에 식량난으로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고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복음 통일되는 그날까지 저들의 생명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맡겨 드립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악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도록.
2.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인권이 지켜지고 신앙의 자유가 있도록.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새해에는 타협과 정체의 신앙인에서 성장과 성숙의 신앙인이 되도록.
2.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묵상과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온전한 예배 장소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4.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 힘쓰도록.
5.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한 의료진, 연구진들에게 겸손과 지혜가 있도록.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나눔란

2022년 1월 2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창세기 32:22-32

야곱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 반항하고 도망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새 출발하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심(24):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야곱뿐 아니라 모든 성도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혼자 있던 시간에도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히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려 하나님은 우리를 '비운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압복' 나무터에 홀로 있게 하십니다. 홀로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본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결단할 때 새 출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출발 하는 우리를 단련하시어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을(욥 23:10) 믿어야 합니다.

2)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25): 야곱이 끈질기게 반항하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노력과 자기 계획으로 모든 것을 얻고 살아온 야곱은 그제서야 자기 힘의 한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필요한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중심적 요령과 잔꾀만 가득했던 야곱의 삶은 자신감이 아닌 교만이었기에 패망에 이르게 되는 삶이며(잠 16:18) 허벅지가 탈골되어 주저앉게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말씀과 같이(고후 12:9) 자신과의 싸움과 하나님과의 씨름을 멈추고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는 믿음으로 새 출발 하시기를 바랍니다.

3)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심(26):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었을 때 이미 싸움은 야곱의 완패로 끝났습니다. 야곱이 상대방을 붙잡은 것은 계속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붙잡음이었습니다. 여태껏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는 발버둥의 삶을 살던 야곱은 이제 자신이 아닌 자기가 매달려 있는 대상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29)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쓰러졌을 때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4)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심을 믿게 하심(28): 야곱이라는 이름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거짓과 속임수로 산 삶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음을 인정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기를 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린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더 이상 발버둥 치는 삶아 아닌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야곱은 비록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고통이 아닌 후련함과 자유함으로 압복 나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받을 때에만 참 행복을 누립니다.

야곱과 같이 나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홀로 잠잠히 하나님을 구하며 나의 몸부림을 멈추고 하나님께 매달려 구원의 만복을 누리는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